

[제2017-101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7.12.14(목)	담당자	노승환 (323-936-3025)		

내셔널 스키 파트롤 남가주지역(National Ski Patrol Southern California Region)회원들, 평창동계올림픽 의무운영인력으로 자원봉사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내셔널 스키 파트롤 남가주지역(National Ski Patrol Southern California Region)* 소속 요원 6명이 평창동계올림픽 의무운영인력**으로 오는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1달간의 일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National Ski Patrol은 겨울철 스키장에서 응급구조를 위해 스키와 의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미 전역에 약 600개 이상의 순찰대와 약 26,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National Ski Patrol Southern California Region은 남가주와 네바다주에 약 12개의 순찰대와 약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무운영인력(전문협력요원) :** 의사, 응급구조사, 패트롤이 한 팀이 되어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경기구역 및 결승지점에서의 응급 처치 및 이송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협력요원

LA한국문화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의무운영인력 부문)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평창올림픽조직위 의무팀과 내셔널 스키 패트롤 남가주지역위원회(National Ski Patrol Southern California Region)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졌다.

당초 내셔널 스키 패트롤 남가주지역(National Ski Patrol Southern California Region) 소속 약 60여명의 회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의무운영인력으로의 참여를 희망 하였으나, 한국어 가능 여부, 스키 Level 관련 Outdoor Emergency Care Training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6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LA한국문화원은 이들이 한국에 가기 전 한국 문화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2월 14일 LA평창홍보관에서 실시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의무운영인력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Tina Choi(내셔널 스키 패트롤 남가주지역위원회 고문)는 "전 세계적인 체육행사인 동계올림픽에 뜻있는 회원들이 의무운영인력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협회 역사에 남을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내셔널 스키 패트롤 소속 회원들은 자비로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본인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간 휴가를 내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미 주류사회에서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LA한국문화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홍보지원 강화 및 체험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